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

“용기있는 인권투사 .. 위대한 지도자 잃었다”



오바마 美대통령 애도 성명 “자유 위한 희생 잊지 말아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그의 조국에 대한 헌신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지칠 줄 모르는 노력, 자유를 위한 개인적 희생은 귀감으로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애도 성명을 통해 “용기있는 민주화와 인권 투사인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슬픔에 빠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은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역동적 민주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정치운동을 일으키고 이끌어 왔다”면서 “미국 국민을 대신해 유가족과 한국 국민에게 애도를 전한다”고 조의를 표했다.

미 국무부도 김 전 대통령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표명했다.

이인 켈리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한국 국민들과 함께 애도한다”면서 “유가족과 한국 국민에게 조의를 전한다”고 밝혔다.

켈리 대변인은 이어 “김 전 대통령은 한국 국민

의 민주주의 열망에 영감을 일으킨 지도자이자 상징이었다”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여로 2000년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조문단 파견 문제에 대한 질문에 “백악관의 결정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당시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를 단장으로, 윌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알렉산더 아비주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등으로 구성된 조문단을 보낸 바 있다.

연합뉴스



니카소네 히로후미 일본 외상이 19일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 마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 분향소를 찾아 분향했다. 니카소네 외상이 조문에 앞서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평화 초석 닦으신 분”

클린턴 부부 “김 前대통령 많이 그리워 할 것”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부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애도를 표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빌 클린턴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용감하고 강력한 이상을 가진 지도자였다”며 한국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넘어서게 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닦고 국제적으

로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선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렸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후 나는 남·북한의 화해를 위해 그와 함께 일하는 영광을 누렸다”면서 햇볕정책이 한국 전쟁 이후 어느 때보다도 영속적인 평화에 대한 희망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인 힐러리와 나는 우리의 좋은 친구였던 김 전 대통령을 그리



워할 것”이라며 유족과 한국 국민을 위하는 등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클린턴 전 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조문단에 포함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연합뉴스

“또 평화 위해 할 일 많으신 분인데...”

DJ와 친분 일본인들도 서거 소식에 명복 빌어

“온화한 미소 뒤에 압력 굴하지 않는 의지 감동”

지난 18일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크고 작은 관계를 맺었던 일본인들도 서거 소식에 안타까워 하면서 명복을 빌었다.

19일 도쿄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1973년 도쿄에서의 납치사건 이후 김 전 대통령이 한국 자택에서 연금됐을 당시 덴 히데오 당시 참의원 의원과 구명 활동에 참가했던 작가 고키카 요타로(74)씨는 “존경하는 정치인이었다. 최대 공적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였다. 그것이 북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온화한 분이었지만 납치사건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결론을 내렸던’ 일본 정부로부터 사죄가 없다”고 분노했다”고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 광주

항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뒤 일본에서 사형집행 정지를 줄곧 요구해 온 와다 하루키(71) 도쿄대 명예교수는 “온화한 미소 뒤에엔 언제나 무엇에도 굴하지 않는 강력한 의지가 배어 있었다”고 회고했다.

납치사건 당시 경찰청 의사 2과장으로 조사를 맡았던 이노우에 유키히코(71)씨는 “첫 보고를 받고 큰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본인이 관련자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한 결과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부상했고, 납치 현장에서는 한국 대사관 1등 서기관 지문도 나왔다는 것. 그러나 한국 정부가 1등 서기관에 대한 직접 조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수사는 좌절됐다.

이노우에씨는 “외교라는 커다란 벽 앞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대통령까지 된 김 전 대통령이 최후까지 진실을 듣지 못하게 돼 정말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2월 오키나와를 방문해, 2차대전 당시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진 ‘평화의 초석’에 헌화한 바 있다.

당시 휠체어를 탄 김 전 대통령을 안내했던 오키나와현 담당자 이사 가이치로씨는 “(김 전 대통령에게) 국적을 불문하고 명복을 비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더니 신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며 “앞으로도 아시아 평화에 공헌할 분으로 생각했는데 너무나 유감”이라고 말했다.

재일한국인 2세로 납치사건 당시 일본에서 김 전 대통령의 비서로, 신변 경호까지 함께했던 배중도씨는 “조국 통일과 민주화를 항상 생각하신 분이였다. 한국이 귀중한 인재를 잃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노벨 평화상의 나라 노르웨이 ‘추모 물결’

노벨평화상의 본고장인 노르웨이는 2000년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시하는 등 ‘추모 물결’에 휩싸였다.

노벨위원회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족에게 조전을 보내고 주 노르웨이 한국대사관에 조화를 전달했다. 오슬로 평화인권센터, 노벨평화센터 등 노벨평화상 관련 단체들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김 대통령의 서거를 추모하는 글을 머리글로 게시했다.

주요 언론도 김 대통령의 서거를 신속히 보도하면서 민주화와 평화, 인권, 남북화해를 위한 그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노벨위원회는 이날 김 전 대통령의 유족들에게 보낸 조전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은 말할 수 없는 슬픔”이라면서 “그의 서거에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노벨위원회는 “한국, 아시아, 더 나아가 전세계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남북 화해를 위한 그의 위대한 기여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택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오슬로 평화인권센터는 “카다란 슬픔으로 서거 소식을 들었다”면서 “그는 위대한 지도자이자 평화 수호자였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 ‘수상자 선택에 자부심’

용서와 화해의 정치 만델라와 비슷

이 센터의 소장을 맡고 있는 셸 마그네 분데빅 전 노르웨이 총리는 “90년대 중반 그를 한국에서 처음 만났는데 온화하고 현명하고 어려운 질문에도 사려 깊게 답변하는 분이였다”고 회고했다.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의 업적 자료와 알프레드 노벨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노벨평화센터도 메인 화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과 그의 인생 역정, 노벨상 수상 연설 등을 소개한 뒤 군나르 베르케 전 노벨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인용,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태도가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SONY

VAIO Style는 시련을 물리치는 힘이다

New VAIO의 특별한 선물은...
스타일링 노트(VAIO-VGN-NP)

My Style My VAIO

★ 행사기간 : 2009년 7월 17일 ~ 8월 31일
★ 구매대상 : 1인용
★ 구매방법 : 1. 02-222-9670
2. 02-222-9670

close to you. VAIO

사람에게 힘을 주는 유익한 그림(지능,건강 등)
활기 상생전시장 오를(11011)과도 비서에게 선택한 그림이 많아서요

분채첩서화

裝體寫書畫 2009.8.17-22
작가 안중선

안중선은 2009년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011 오를(11011)에서 분채첩서화 전시회를 개최한다. 안중선은 2009년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011 오를(11011)에서 분채첩서화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 기간 : 2009년 8월 17일 ~ 22일
전시회 장소 : 오를(11011)과도 비서에게 선택한 그림이 많아서요
문의처 : 02-222-9670

NAVER

<광주성일문서화>
광주성일문서화 2층, 3층 전가부설 카운터형 광주지부
<소장분리 및 전가부설 카운터형 문서화>
TEL 010-222-9670 FAX 010-222-9670